

용기와 협동을
심어
자랑스러운
양계인이
되자



鄭 在 德
(본회 경북지부장)

자주 많은 사람들로 부터 「앞으로 養鷄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질문을 하는 분들의 事情은 아마 앞으로 어떤 狀況이 닥쳐 올것인가? 그리고 그 狀況에 어떻게 對備할가? 하는 생각이 支配的 일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養鷄의 狀況은 그 진폭이 크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잘 表現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하는 우려보다는 길다면 긴 十年뒤를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살핀다는 命題는 꼭 바람직하며 진취적인 着想이다. 聖經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란 말씀이 있다. 심고 거두는 일의 연속이 世上事일런지도 모른다. 잘못 심고 좋은 結實을 바라는 우매한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 돌풍처럼 휩쓰는 마력病앞에 속수무책이던 10년전을 생각하면 지금의 狀況은 좋은 편에 속한다. 백신의 出現은 우연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간절한 必要의 所産이며 노력의 결정이었다. 또한 교통수단의 發達은 도시근교의 양계단지를 地方으로 擴大分散케 하였으며, 따라서 規模增大를 이룩하게 된 것이 지난 10年間の 변모이겠다. 그 외에도 국내종계의 開發과 양계제재료산업의 發展이 팔목할 만한 성장으로 손꼽을 수 있겠다. 앞으로 十年後는 이보다 더 많은 發展과 向上이 있어야 하겠다. 경영과 技術또는 制度等 모든 養鷄의 全分野가 힘쓰고 애쓸때라고 생각하여 處理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서 생각나는 몇가지를 記述하고 고자 한다.

1. 安定된 産業으로서의 養鷄

發展과 成長 以後 追求해야 할 것은 當然히 安定이다. 養鷄를 不安케하는 要素를 크게 두가지로 區分하면 疾病과 生産物의 價格問題이다. 이 두개의 不安要素를 除去하기爲한 모든 노력이 必要하다. 疾病의 경우 새로

운 防疫研究를 業界가 最善을 다하여 도와야 한다. 아니 그 主体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制度의 측면에서 볼때 가끔疾病의 蔓延을 事前에 防止하기 爲해 傳染性疾病의 防疫에 있어서 多少間 現行施行令이 實質적으로 補完되어야 한다고 본다. 法定傳染病이 蔓延되었을 경우 그것은 예방접종 및 藥의 力價等 여러部分에서 그 허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最少限 傳播될 수 있는 要因을 根絶시키는 만병 家畜의 멸각은 誠實히 施行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한 次元 높혀 國民健康과 나아가 生産物 購賣力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重大한 問題라고 생각한다. 例컨데 「뉴켓슬」이 發生되었다고 하자, 畜主와 수의사는 發生을 고시하고 發病地域의 통제等 必要한 手段을 强求하게 된다. 이것이 現行法으로 이룩할 수 있는 조처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自己農場에 發病을 고시하는 畜主는 드물다. 따라서 수의사 立場 역시 좋은 게 좋다는 式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러냐는 理由는 說明하지 않아도 대개 알 것이다. 이와 關聯하여 천재지변으로 農作物에 被害가 發生하면 政府는 이를 補賞내지는 稅制上으로 減免等 最善을 베푼다. 참 좋은 施政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닭이 뉴켓슬로 즐비하게 죽어있는 狀況과 버가 病虫害를 입어 収獲할 수 없는 狀況과 무엇이 다 지 모르겠다. 뉴켓슬도 農産物 生産를 저하하는 自然的 被害라면, 또 病의 계속 蔓延됨을 防止하기 위해서라도 多少의 barrier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일보 양보하여 稅制上의 惠擇이라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法定傳染病에 對하여는 家畜疾病災害保險같은 것도 지금부터 서서히 研究해 볼만한 課題이다. 「山林經濟」에 이런 글이 있다. 「鷄雜病治防, 眞麻油灌之立愈」- 참기름이 닭의 여러질병을 낮게 한다는 200여년 前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참기름 代身 무엇이 닭의 여러疾病을 낮게 하는지 알고 방역에 새

로운 포석을 할때라고 생각한다.

養鷄産物價格決定에 生産者는 有口無言이다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좀 심한 例를 들면 約 2個月 동안 애써 肉鷄 千首를 키운 飼育主는 기십만원의 손해를 보아도 商人은 利潤이 있어야 하고 飼育者쪽의 손해가 消費者에게 값싼 닭고기로 팔린다면 不幸中 多幸한 일이겠는데 「요즘 내리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철칙같은 관념 때문에 生産者의 出血은 消費者의 손에서는 아무런 흔적이 없다. 肉鷄의 生産者 出荷價格을 그래프로 表示한 것을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가파른 오르, 내리막이지만 消費者購入價格은 거의 완만한 一定線이다.

그나마, 팔려면 아무소리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서글픈 생각이 든다. 「값이 맞지 않으면 안판다」 이것을 可能케 하는 유일한 길은 生産物의 저장 보관이 필요하고 아울러 消費保進을 加速化할 수 있는 商品의 개척이 절실히 요망되는 것이다. 우리는 올해 推進 해온 닭고기 消費 캠페인을 통하여 상당한 가능성을 發見 하였다. 앞으로 이 分野에 많은 投資를 하여 하루 속히 生産者의 권익을 保護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例를 들면 鷄肉을 훈증처리하여 진공포장하는 Smoked Chicken이나, 粉卵, 에그코팅, 등을 開發해야 하겠으며, 食用以外에도 흰자를 전조利用한 工藝材料도 外國에서는 活用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한 生産量의 共給調節을 爲한 養鷄業의 登錄 申告制의 實施를 시도함이 必要할 것 같다. 先進農畜産國에서 이미 施行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비단 生産物量의 調節뿐만 아니라, 國民肉類供給計劃의 基礎資料를 正確히 하기 爲해서라도 必要한 조처라고 생각된다.

2. 機械化

모든 經營에 通用되는 것이 겠지만 人力管理가 차지하는 比重은 模大하다. 아울러 人力管理가 곧 經營과 直結된다는 것을 實感하게 된다. 더우기 作業조건이 不利한 養鷄에서 人力難은 앞으로 더욱 深化되리라는 展望에 對하여는 그 누구도 自身있게 反對하지 않을 것이다. 自然히 機械化의 必要性은 全養鷄人이 피부로 느끼는 形편이다. 機械化를 위하여는 여러가지 基礎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外國의 많은 養鷄機械들이 선보이고 있다. 外國의 그런 機械들이 우리의 養鷄에 맞도록 改善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規模와 資本等이 機械化를 감당 해 낼 수 있어야 하겠다. 우선 모든 分野의 設計에는 機械化를 머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하겠다. 새 鷄舍의 建立時 通路를 넓게 잡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나중엔 機械化作業에 크게 도움이 될 줄 믿는다. 이 외에도 技術적인 것 政策的인 것 등 많은 할일 向後十年 안에 준비하게 깔려있다. 먼저 할일은 發見하는 者가 항상 앞서가는 법이다. 이런 저런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나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勇氣와 協同이 必要하다.

十年後 우리의 養鷄產業이 安定위에 눈부신 發展을 이룩한다면 그때 우리는 이 모두가 오래전 勇氣와 協同을 심은 結果라고 자신있게 자랑 할 수 있는 상황인이 되자. 용기는 어떤 어려운 양계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意志이다.

양계인의 필수품!

모든 양계관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책상위에서 물품구입의 지침서로서
전화번호부로서의 역할을 다할
양계인들을 위한 종합 정보誌

養鷄情報

발간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서울시 중구 양동 44-28

대한양계협회(대체구좌 519272번)으
로 권당 3000원을 보내 주시면 즉시
우송해 드립니다.